

성경 예언 해설집 <12회>

발람

(지난호에 이어서)
1차 예언 해설
본문에서 발람은 일곱 제단에 일곱 마리 숫소와 숫양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신의 지시대로 발람 왕에게 말하였다. 왕과 신하들은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반대의 말을 하였다.
“모압 왕이 나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였으나 여호와가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꼬” 하였다.
발람이 평지에 장관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진을 바라보면서 영감이 떠오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백성이요 열방 중 하나와 같지 않다”고 하였다.
이 말씀에 큰 뜻이 있으니 이스라엘은 홀로 살아갈 민족이라 한 것은 다른 민족과 동화될 수 없는 독특한 민족성을 말하였다. 나라 없는 민족으로 3천년을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종교, 문화, 문자와 말을 고수하므로 유대인의 특성을 세계가 인정한다.
아세아 중국 대륙에 살고 시대는 많은 민족이 활동하였으나 근세에 들어와 모두 한문화에 흡수당하여 중화인이 되었다. 모두가 한문을 쓰고 중국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민족 자체가 소멸되었다.
민족 정신, 글과 말을 보존하여 독립 민족의 정통을 계승한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는 상태이다.
발람의 말 가운데 “이스라엘은 열방 중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고 하였으니 만

국 중에 평범한 나라가 아니요 만민 위에 뛰어난 나라요 민족이라고 찬양하였다. 발람의 예언은 금세기에 들어와 적중하였으니 이스라엘 민족으로 동방에 영주한 우리 민족은 만민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계를 지도하는 우등국이 되리라.
2차 예언 해설
발람은 왕에게서 많은 재물을 받으려고 이스라엘에게 제안을 말하려고 애써도 2차에도 발람의 입에서는 노래를 부르듯이 축복의 말이 흘러 나왔다. “여호와가 내게 명하였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하였다. 발람의 말 가운데 유념할 대목은 아굽을 해할 사술(邪術)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卜術)이 없다고 하였다. 발람은 술사로서 사람을 속이는 술법이 능통하여 마음대로 행사하였으나 술법의 신 마귀는 하나님의 신에게 놀려서 그 입에서 사술이 나오지 못하였다. 이 백성이 암사자 같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용맹을 떨친다고 찬양하였다.
3차 예언도 이스라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강함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강조하였다. 발람의 예언 중에 제일 중대한 내용은 4차 예언에 명시되었다.
4차 예언 해설
“한 별이 아람에게서 나오며 한 홀(物)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편과 저편을 쳐서 파하고 소동하는 자를 말하리도다.”

하였다. 별과 홀이 나타나는 시기는 가까운 시기가 아니요 먼 장래의 일이라고 하였다.
발람의 예언을 두고 유대교와 예수가 큰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별과 홀은 왕을 뜻함이나 하늘나라가 회복되는 시기를 가리킨 것이다. 죄악 세상을 벌하는 심판자가 임하여 소동하는 자를 멸한다 함은 마귀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이니 별과 홀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완상자를 말하였다.
예수가 발람의 예언을 예수에게 연계시켜 예수가 별과 홀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예수가 탄생할 때 하늘에 별이 나타나 증거하였다고 동방 박사의 기사를 강조한다. 마태복음 2장에서 박사가 별을 따라 동방에서 서방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말하고 베들레헴까지 별이 인도하였다고 기록하였다.(마 2장)
하늘의 별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햇불같이 이동할 수는 없다. 캄캄한 밤에 등불같이 앞길을 인도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별은 하늘에 떠있는 육적 별이 아니요 홀(象)의 이름으로 별은 존귀한 자, 절대자를 말함이니 예수 이후 사도 요한은 이간자를 말할 때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하였으니 발람이 말하기를 다시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3천4백여 년 전 발람의 예언은 예수 당시가 아니요 오늘의 이간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지칭하였으니 예수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임하신 이간자 조희성(曹熙星)을 가리켰으니 이간자는 이름이 ‘밝은 별’이다.
발람이 말한 별의 장본인이 예수라면 예수가 왔다가 간 후에는 별의 주인공이 다시 온다는 말이 없어야 될 터인데 요한은 장차 올 이간자는 별로 온다고 하였다. 예수가 고집하는 주장은 비성경적이니 이단이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요한이 계시록을 쓴 시기는 예수가 떠난 후 50여 년 지나서 쓴 기록이니 별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예수교 성경학자들이 이간자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로 알고 있으니 성경에 무식한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천사 마귀, 붉은 용 마귀는 고도의 지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 예언한 선지자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였다.
복술로 돈 버는 데 익숙한 발람은 모압 왕이 많은 재물을 준다고 유혹할 때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발람이 모압으로 떠나기 전 하나님의 신은 엄하게 경계하였다. “너는 모압에 가서 내가 명하는 말만 하고 다른 말로 술수를 쓰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모압의 사신을 따라가면서 발람의 마음은 변하였다. ‘왕의 요구만 들어주면 평생토록 먹고 쓸 재물을 준다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길을 가니 발람의 속마음을 감지한 하나님은 무장을 한 천사로 나타나 칼을 빼들고 앞에 서서 죽이려 하였다. 말 못하는 나귀가 천사를 먼저 보고 무서워 앞으로 가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니 발람은 화가 나서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니 말 못하는 나귀가 임으로 사람처럼 말을 하였다. “당신이 왜 나를 세 번이나 때

리느냐. 지금까지 당신을 태우고 다녔지만 이런 버릇이 언제 있었느냐?” 하였다. 이윽고 발람이 무장한 천사를 보게 되니 천사가 노한 얼굴로 칼을 들고 있어 발람은 천사의 칼에 죽을까 두려워 고하기를 “내가 가는 길이 불의하다면 집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였다.
천사는 명하기를 “왕의 사신을 따라가라.” 다시금 명령하기를 “내가 지시하는 말만 하고 다른 말을 하지 마라. 네 수단을 쓰면 죽는다고” 경고하였으나 결국은 재물이 탐이 나서 이스라엘을 망치는 방책을 왕에게 지시하고 금은보화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민 22장-25장)
우리가 불가사의한 생각에 잠기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마귀의 수단 부릴 것을 물렸을까. 하나님 편에 손해본 것이 아니라. 발람의 음모로 인해 시므온 지파는 음란죄로 인하여 인구가 절반이나 죽었으니 비참한 사건이다.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이간자의 상징인 별이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면 세상의 소동



발람 왕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으나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민23-24장)

하는 자를, 즉 마귀 권세를 파하고 뜻을 이룬다고 하였으니 이 예언은 죄인의 목숨 천만 명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얻은 교훈은 이간자의 산모가 되시는 영모님의 행적에서 찾을 수 있다. 이간자 한 사람을 배출하려고 전도관 울타리를 만들고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이간자를 만들었다. 이간자가 나온 후 당신은 너무 기뻐서 자랑도 하였다. “이간자가 아니면 역곡으로 사람을 끌어올 수 없다. 나도 거기(역곡) 가야 돼. 거기 가야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간자를 증거한 영모님은 왜 못 오고 세상을 떠났을까? 이간자가 아니면 붉은 용 마귀의 세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로잡히는 것이다. 인간의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가 기른 제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손군이 앞서지 않아 영모님이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니 영모님을 둘러싼 전도관 울타리가 떠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해와 이간자도 같은 맥락이다.*
- 다음호에 계속 차승도

니느냐. 지금까지 당신을 태우고 다녔지만 이런 버릇이 언제 있었느냐?” 하였다. 이윽고 발람이 무장한 천사를 보게 되니 천사가 노한 얼굴로 칼을 들고 있어 발람은 천사의 칼에 죽을까 두려워 고하기를 “내가 가는 길이 불의하다면 집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였다.
천사는 명하기를 “왕의 사신을 따라가라.” 다시금 명령하기를 “내가 지시하는 말만 하고 다른 말을 하지 마라. 네 수단을 쓰면 죽는다고” 경고하였으나 결국은 재물이 탐이 나서 이스라엘을 망치는 방책을 왕에게 지시하고 금은보화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민 22장-25장)
우리가 불가사의한 생각에 잠기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마귀의 수단 부릴 것을 물렸을까. 하나님 편에 손해본 것이 아니라. 발람의 음모로 인해 시므온 지파는 음란죄로 인하여 인구가 절반이나 죽었으니 비참한 사건이다.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이간자의 상징인 별이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면 세상의 소동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37>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37>

석가모니가 불경에서 정의한 감로(甘露)의 바른 뜻

【예】 대반열반경 31권 가섭보살품(迦葉菩薩品)제 24-1
涅槃亦名涅槃…亦名甘露
열반역명열반…역명감로

열반은 또 열반이라고 이름하고…또한 감로라고 하며…

【예】 대반열반경제 9권 월유품(月喻品)제 15
亦名菩提不可窮盡 以不盡故 故得稱為大般涅槃 有善光故 猶如夏日身無邊故 名大涅槃 亦명보리불가공진 이불진고 고독 칭위대열반 유선광고 유여하일신무변 고명대열반

(그러므로)또한 보리(菩提)는 다하여 끝남이 없다(不可窮盡)고 이르는데 다함이 없으므로 대반열반을 얻었다고 부르는 데, 훌륭한 빛이 마치 여름 해와 같으며, 몸이 가히 없으므로 대열반(大涅槃)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예】 대반열반경 9권 보살품(菩薩品)제 16
復次善男子 如日月光諸明中最 一切諸明所不能及 大涅槃光 亦復如是 於諸契 부차선남자 여일월광제명중최 일체제 명소불능급 대열반광 역부여시 어제계 經三昧光明最爲殊勝 諸經三昧所有光明所不能及 何以故 大涅槃光能入衆生諸 경삼매광명최위수승 제경삼매소유광 명소불능급 하이고 대열반광능입중생제 毛孔故 衆生雖無菩提之心 而能爲作菩

提因緣 是故復名大般涅槃
모공고 중생수무보리지심 이능위작보리인연 시고부명대반열반

또 선남자야, 해와 달의 빛이 모든 빛 중에서 최고 밝아서 모든 빛이 비할 바가 아니듯이, 대열반의 빛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불경들의 삼매 가운데 최고로 수승한 것이니 모든 경전이 가지고 있는 밝은 빛이 있지만 비할 바가 아니니라.

왜냐하면 대열반의 빛이 중생들의 모든 탐구명을 통하여 들어가므로 중생이 비록 보리의 마음이 없다 해도 능히 보리를 짓게 하는 인연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다시 이르면 대반열반이라고 부르느니라.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舍利弗 彼佛光明無量 照十方國無所障礙 是故號爲阿彌陀 又舍利弗 彼佛壽命及其人民無量無邊阿僧祇劫 故名阿彌陀 사리불 피불광명무량 조십방국무소장애 시고호위아미타 우사리불 피불수명급 기인민무량무변어승지겁 고명아미타

사리불야, 저 부처님은 빛(甘露)의 밝음이 한량이 없고 사방(우주)의 나라들을 비침에 있어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없으므로 아미타라고 부르느니라.

또 사리불야, 저 부처님과 그(나라의) 사람들은 한량없고 가히 끝없을 정도의 이승지검의 수명을 가지므로 아미타 라고 이르느니라.

【예】 대반열반경 5권 사상품(四相品)의 나머지
又解脫者即無爲法…又解脫者無病…是甘露者即眞解脫 眞解脫者即是如來…眞解脫者即是如來轉法輪王…又解脫者無有鬪諍

우해탈자즉무위법…우해탈자무병…시 감로자즉진해탈 진해탈자즉시여래…진해탈자즉시여래전법륜왕…우해탈자무유투쟁

또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무위의 법이요…또 해탈이라고 함은 병이 없으니…이 감로가 곧 참해탈이요 참해탈이 곧 여래이며…참해탈한 이가 곧 여래요 전법륜왕이나…또 참해탈은 다름이 없느니라.

眞解脫者即是如來 如來亦爾 不生不滅 不老不死不壞 非有爲法 死者名日身壞命終 是處無死即是甘露 是甘露者即眞解脫 진해탈자즉시여래 여래역이 불생불멸 불노불사불괴 비유위법 사자명왕신괴명종 시처무사즉시감로 시감로자즉진해탈 참해탈이 곧 여래요, 여래는 또한 이같이 (번뇌가) 나지 않고 (몸이) 멸하지 않으며, (신체가) 늙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이) 죽는 것이 아니니, (치어나 빠가) 무너짐이 없고 함이 있는 법이 아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몸이 (늙고 병들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는 것인데 이(해탈) 함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감로요 이 감로가 있다고 하는 것이 곧 참해탈이니라.

【예】 대반열반경 8권 조유품(鳥喻品)제 14
不放逸者則名涅槃 彼涅槃者名爲甘露 第一最樂… 불방일자즉명열반 피열반자 명위감로제일최락…

방일하지 아니함을 곧 열반이라 하며 열반을 감로라고 하는데 제일가는 최고의 즐거움이나…

【예】 대반열반경 8권 여래성품(如來性品)제 12
云何放逸云何不不放逸 非聖凡夫是名放逸常死之法 出世聖人是不放逸無有老死 云何放逸云何不不放逸 非聖凡夫是名放逸常死之法 出世聖人是不放逸無有老死 일상사지법 출세성인시불방일무유노사

어떤 것이 방일이요 어떤 것이 방일하지 않음인가? 성인이 아닌 범부는 방일이라고 하는데 항상 죽는 법이요, 세상에 나 온 성인(佛)은 이렇게 방일하지 않으니 늙음과 죽음이 없느니라.

【예】 이와 같이 석존은 경전에서 감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불방일=열반=감로=해탈=여래=감로=밝은 빛=빛 중에서 최고 밝은 빛=우주를 비추는데, 겹겹과 장애가 없는 꿩고리가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로가 물이 아니고 바로 빛을 의미하고 있으며, 열반이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불도를 닦는다고 하는 이가 잠시도 자신을 방일하게 할 수가 없으며, 부단히 쉬지 않고 정진하여 불도를 이룬 이가 바로 모든 번뇌를 멸하고 본래의 청정법신(淸淨法身)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열반을 얻었다고 하고 열반을 얻은 이, 즉 불도를 이룬 이의 몸에서 밝은 빛이 한량없이 뿜어 나오는 것을 감로(甘露)라고 한다거나 합니다.

그렇습니다. 열반(涅槃)이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를 멸하고 머무는 것이나 짐작이 없는 진성(眞性)의 그 자체가 되는데 이러한 가운데 “나”라고 하는 객체의 생각이 전혀 없으므로 투쟁이 없고 오직 항상 즐거운 가운데 일체의 하늘 사람의 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열반을 일러서 “공(空)함에 있다.”라고도 하는데, 공(空)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비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

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세속적인 인간의 생각이 되는 욕심과 차별이 전혀 없는 부처님의 경계에서 논하는 순수와 진리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열반의 종류를 크게 둘로 나누고 있는데, 우선 무여열반(無餘涅槃)과 유여열반(有餘涅槃)이라고 합니다.

무여열반은 글자대로 남음, 곧 번뇌의 그림자도 없는 순수한 부처와 보살의 정진 결과이며, 유여열반이라는 것은 성문과 연각과 벽지불 단계의 도과(道果)가 미완성(未完成)의 수행자의 깨달음을 말하는데 번뇌의 찌꺼기가 있으므로 무상정등정각을 이루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치로 유여열반은 진정한 열반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성문과 연각 그리고 벽지불과의 깨달음을 나눌 때 쓰는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분류에서 살펴보면 성문과 연각은 완전한 열반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감로가 없고, 감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용맹 정진하여 무상의 크고 평등한 깨달음에 이른 부처님의 경지에서만이 감로가 있으며 이 감로가 나오는 경지에 도달해야 비로소 불도를 이루었다고 하며 불타(佛)의, 세존(世尊)의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수와 진리를 말할 때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벽이 무너지고 시공의 벽이 존재하지 않는 삼매(三昧)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일체의 우주와 함께 한 몸이 되는 상태를 말하고 이러한 한 몸의 상태가 되므로써 나와 나의 차별이 사라지는 그야말로 하나로 합하여지는 모양이 되는데 이것을 일러서 우리는 일합상(一合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앞장에서 보신 것과 같이 석존은 스스로 ‘열반에 들지 못했다’고 하셨다면 석존 역시 감로의 정도(正道)가 없었고 그러므로 진리(眞理)의 올바른 법을 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리란 바로 성불하는 법을 말하며, 이

법 가운데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 즉 인간이 부처님이요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본래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이치로 살펴보면 “일체중생에게 부처성품이 있다”고 하는 불교의 진리에서도 불성에 대해 세밀하고 자세하게 논의 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석존께서 불성에 대해 미래의 부처님이 “논 하실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답이 없음을 보아 석존께서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석존께서 왜 금강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수보리를 통하여 이러한 법문을 하셨는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비록 부처님의 말씀이 듣기 좋고 옳다라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스스로의 자유율법을 닦는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실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잘못된 생활과 습관의 유혹은 집요하게 수행자를 계속 미혹하므로 고의든 지 고의가 아닌 타의로 인간생활에 유혹을 잊지 못해 스스로의 계를 파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다함과입니다.

그러나 미륵부처님께서는 『인간들의 잘못된 생활과 습관이 아주 오랜 세월이어져 지금 나에게 습관이 되었으니 어찌 쉽게 끊어지겠습니까? 이 길은 마치 마라톤선수가 목표지점을 향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인내하면서 쉬지 않고 앞으로 나갈 때 비로소 목표지점에 도착하듯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정진해서 목표지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셨듯이 수행자의 마음이 한 번은 하늘에, 한 번은 인간의 욕심세계를 헤매게 되는 과정을 이르는 것입니다.*